

진구황후(神功皇后)의 정체*

金成俸**

韓·中·日の史書ではほぼ同時代に登場する3人の女人、つまり細烏女(『三国遺事』)、卑弥呼(『三国志』の魏志倭人伝)、神功皇后(『日本書紀』)は同一人物であろうと思われる。

新羅の巫女であった細烏女が倭に亡命して女王になった。この細烏女が、中国では卑弥呼、日本では神功皇后として描かれたものとみなす。

『日本書紀』編著者が細烏女が新羅人であったため、存在しない架空の人物の神功皇后を作り、細烏女(中国では卑弥呼)の活動時期とキャラクターは同様に維持しながら、3世紀頃にありえない新羅征伐などでたらしめな記録を加えて、伝説的な英雄として変身させたのである。

神功皇后を細烏女と関連させることは神功皇后となった時期と細烏女が倭へ亡命して倭王になった時期と似ていて、また神功皇后は新羅の系譜を引き継いでいるからである。

七支刀は百済がたとえ新羅人であるが、倭王になって百済の王世系に帰化した細烏女に倭王になったことを認める剣である。

キーワード：細烏女、卑弥呼、神功皇后、七支刀
(세오녀, 히미코, 진구황후, 칠지도)

1. 머리말

진구황후(神功皇后)는 『日本書紀』와 『古事記』에서 임신한 몸으로 신라정벌에 나서 신라와 백제 고구려의 항복을 받아낸 일본고대의 한반도 정복의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는 인물이다.

그 실재성조차 의심받고 있지만 일본은 근대에 들어서자 진구황후가 고대 삼한정벌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메이지(明治)정부의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kcjkb@hanmail.net

한반도 식민지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사용했다.

본고는 이와 같이 근대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기 위해 내세운 인물인 진구황후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日本書紀』 진구황후 52년(252년)에 백제가 진구황후에게 하사했다고 하는 칠지도(七支刀)의 명문을 재해석해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진구황후의 허구성

진구황후의 기록은 『日本書紀』와 『古事記』, 『風土記』에서 보이는데, 이 중 『日本書紀』에서는 천황이 아닌 황후라는 별도의 권을 만들어 논리상 전혀 맞지 않은 기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신라정벌담의 주인공 진구황후는 14대 주아이(仲哀)천황의 황후이자 15대 오진(応神)천황의 생모로 전해지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름은 ‘오키나가타라시히메(氣長足姫)’¹⁾라고 말하는데, 어머니는 신라의 왕자 ‘아메노히보코(天之日矛)’의 후손인 ‘가즈라키노타카누히메(葛城高瀨媛)’이다. 이런 점에서 진구황후의 계보는 어디까지나 신라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진구황후의 기록에서 가장 핵심은 진구황후가 신라정벌을 했다는 것인데, 신라정벌에 나선 이유는 『古事記』에서 보면

“西方有国。金銀為本、目之炎耀、種種珍宝、多在其国、吾今歸賜其国。”²⁾

서쪽에 나라가 있다. 금과 은을 비롯해 눈부시게 빛나는 여러 종류 진귀한 보물이 그 나라에 많다. 나는 지금 그 나라를 복종시켜 너희들에게 주겠다.

1) 『万葉集』에서는 「息長足日女」라고 표기를 한다.

2) 倉野憲司·武田祐吉 校注(1983) 『古事記 祝詞』 日本古典文学大系1、岩波書店、p.228.

와 같은 기록에서 보듯이 신라는 금, 은 등의 보화가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구황후는 신라를 정벌한 후에

金銀彩色及綾·羅·縑絹、³⁾
 금·은·채색 및綾·羅·비단·명주,

와 같이 금, 은 등 보물을 배에 가득 싣고 돌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신라는 ‘金銀의 나라’라는 것이다.

皇后曰、初承神教、將授金銀之國。⁴⁾
 황후는 처음에 신의 가르침을 받들고 지금 막 금은의 나라
 (신라)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라국이 ‘金銀의 나라’라는 것은 진구황후 이전 주아
 이천황 8년의 기록에서도

眼炎之金·銀·彩色、多在其國、是謂椀衾新羅國焉。⁵⁾
 눈부신 금·은·채색 등이 그 나라에 많다 이를 다쿠부스마
 (椀衾) 신라국이라고 부른다.

와 같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인용문의 頭註를 보면 “쓰다 소우
 키치(津田左右吉)는 신라의 문화수준이 발달한 것은 6세기 초엽 智
 証王·法興王의 治世, 따라서 신라를 ‘金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思想이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실은 진구황
 후(서기 169년-269년) 시대의 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金銀’에 대한 기록을 『三國史記』에서 보면 「고구려본기」와 「백제
 본기」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신라본기」⁶⁾에서 보면 신라가 당

3) 坂本太郎 他3人 校注(1982) 『日本書紀上』 日本古典文学大系67、岩波書店、p.339.
 4) 坂本太郎 他3人 校注(1982) 前掲書、p.339.
 5) 坂本太郎 他3人 校注(1982) 前掲書、p.327.
 6) 文武王2(662)年正月 「唐定方以銀五千七百·分細布三十四…」
 文武王12(678)年正月 「進貢銀三萬三千五百分、銅三萬三千分…金百二十分…」
 聖德王22(683)年4月 「遣使入唐獻果下馬一匹·牛黃·人蔘…金銀等」

(唐)에 보내는 조공품에 반드시 ‘金銀’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日本書紀』⁷⁾에서 보더라도 백제 멸망 후 신라사절단이 일본에 가지고 가는 특산물에도 ‘金銀’이 반드시 들어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신라에서 ‘金銀’이 대두된 시기는 약 7-8세기 무렵이다. 따라서 『日本書紀』의 진구황후 편에서 ‘金銀’에 대한 내용은 『日本書紀』 진구황후(서기169년-269년) 시대의 묘사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진구황후의 이름에 대해서 보면 “실제 이름인 ‘오기나가 타라시’를 4세기 때 실제로 사용된 이름이 아니라 7세기 중엽에 새로이 만들어진 보통명사로서 그것은 실제의 인물이 아닌 가공적인 인물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해석이 강하였다.”⁸⁾는 것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4세기에는 존재한 인물은 아니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역대 천황 가운데 ‘타라시’라는 일본식 시호를 가진 여성 천황은 두 번 재위에 오른 35대 고교쿠(皇極)천황(37대 齊明)인 ‘아메토요 타카라이카시히타라시히메’뿐이고, 그리고 이 천황은 실제 역사적으로 7세기 말에 백제의 원군으로서 신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총사령관이 되어 北九州에 출정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진구황후는 신라 원정이 실제로 거론되고 실행되던 7세기 말 이후의 女帝들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이며, 4세기 말에 실재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⁹⁾

『日本書紀』에서 진구황후의 기록은 엉터리라는 것은 『日本書紀』

同29(730)年春二月 「遣王族<志滿>朝唐,獻小馬五匹・狗一頭・金二千兩…」

同30(731)年春二月 「遣<金志良>入<唐>賀正,<玄宗>…“所進牛黃及金銀等物…”」

同33(734)夏四月 「獻小馬兩匹・狗三頭・金五百兩・銀二十兩・…」

金富軾著・金種權訳(1986)『完訳原文三國史記』明文堂, pp.123-164 참조.

7) “天武8(679)年 甲子、新羅、遣阿浪金項那・沙浪薩藥生、朝貢也。調物、金銀鉄…。

天武10(681)年 新羅遣沙喙一吉浪金忠平・大奈末金壹世貢調、金銀…。

持統2年(688)年 大宰獻新羅調賦、金銀…。”

坂本太郎 他3人 校注(1982)『日本書紀下』日本古典文学大系68、岩波書店、pp.410-494 참조.

8) 魯成煥(1993)「神功皇后伝承과 新羅」,『日本学』13집, 東国大学校 日本学研究所, p.244.

9) 直木孝次郎(1988)『古代日本と朝鮮・中国』講談社學術文庫、p.89.

의 진구황후 편에서 보면,

“高麗·百濟二国王、聞新羅收函籍、降於日本国、密令伺其軍勢。則知不可勝、自來于營外、叩頭而款曰、從今以後、…不絶朝貢。”¹⁰⁾

고려, 백제 두 나라의 왕은 신라가 토지대장과 백성 호적을 챙기고, 日本国에 항복하였다는 것을 듣고 몰래 일본의 군세를 살피었다. 그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스스로 우리 진영의 밖에 다가와서 머리를 땅에 대고, ‘금후는 …… 조공을 끊지 않겠습니다.’고 말하였다.

3세기경에 신라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구려왕과 백제왕이 진구황후의 군세를 엿보다가 전혀 싸워보지도 않은 채 스스로 달려와서 항복했다는 기록은 그 당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다. 그 이유는 3세기 한반도에서 가장 약한 나라는 신라이고, 최강자는 고구려이다. 삼한에서 신라가 최강자가 되기 시작한 것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한을 통일할 무렵 약 7세기 이후일 것이다. 따라서 신공의 정벌담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7세기 말 『日本書紀』의 편저자가 만들어 낸 이야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日本書紀』 편저자는 가공적인 진구황후를 만들어 『日本書紀』의 기록을 이주갑(120년) 인상해서 기록을 조작하고 있다.

“五十五年、百濟肖古王薨。

五十六年、百濟王子貴須立為王。

……

六十四年、百濟國貴須王薨。王子枕流王立為王。

六十五年、百濟枕流王薨。…叔父辰斯奪立為王。

六十六年。是年、晉武帝泰初二年。晉起居注云「武帝泰初二年十月、倭女王遣重詎貢獻。」

六十九年夏四月辛酉朔丁丑、皇太后崩於稚桜宮。時年一百歲。”¹¹⁾

10) 坂本太郎 他3人 校注(1982) 『日本書紀上』 前掲書、p.339.

11) 坂本太郎 他3人 校注(1982) 前掲書、pp.359-361.

55년(255년) 백제의 초고왕이 죽었다.

56(256년) 백제의 왕자 귀수가 왕위에 올랐다.

.....

64년(264년) 백제국의 귀수왕이 죽었다. 왕자 침류왕이 왕위에 올랐다.

65년(265년) 백제의 침류왕이 죽었다...숙부 진사가 왕위를 빼앗고 왕위에 올랐다.

66년(266년) 이해는 진의 무제 태초 2년이다. 진의 기거주에 「武帝泰初」 2년 10월 왜의 여왕(히미코)이 와서 공헌하였다고 이른다.

69년(269년) 夏四月 辛酉 朔壬 丁丑(17일)에 황태후가 오가 사구라노미야(稚桜宮)에서 죽었다(때의 나이 100세)

위의 『日本書紀』에서는 ‘초고왕(255년 死)¹²⁾ → 귀수왕=구수왕(264년 死)¹³⁾ → 침류왕(265년 死) → 진사왕(265년 즉위)’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三国史記』의 백제본기에서 보면 ‘근초고왕(375년 死) → 근구수왕(384년 死) → 침류왕(385년 死) → 진사왕(385년 즉위)’로 기록되어 있다. 한일 비교해보면 『日本書紀』에서는 『三国史記』보다 2주갑(120년) 인상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 진구황후와 히미코(卑弥呼)

진구황후의 통치기간을 『日本書紀』에 의해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2) 초고왕은 백제 제5대 왕으로 214년 죽었다. 여기서 초고왕이라고 할 때는 백제 제5대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제13대 근초고왕인데 간단히近了 생략해서 초고왕이라고 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의문이다.

13) 귀수왕(구수왕)은 백제 제6대 왕으로 234년에 죽었다. 여기서 귀수왕이라고 할 때는 백제 제6대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제14대 근구수왕인데 간단히近了 생략해서 구수왕 또는 귀수왕이라고 불렀던 것인지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의문이다.

“仲哀天皇2年(193년) 1월에 황후가 됨
 仲哀天皇9年(200년) 2월 주아이 사망, 진구황후 섭정원년 신
 라를 굴복시키고 백제, 고구려도 복종(삼한정벌)
 神功皇后摂政49年(249년) 신라정벌
 神功皇后摂政52年(252년) 칠지도를 받음
 神功皇后摂政62年(262년) 신라정벌
 神功皇后摂政69年(269년) 사망”¹⁴⁾

위의 기록에 의하면 대략 서기 200년부터 269년까지로 추측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일본을 통치한 여왕을 기록한 중국의 사서(史書)에서 찾아보면 2-3세기의 왜국 여왕으로 히미코(卑弥呼)라는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다.

『三国志』위지동이전(魏志東夷伝) 왜인전(倭人伝)에서 보면,

其国本亦以男子为王，住七八十年，倭国乱，相攻伐歷年，乃共立一女子为王，名曰卑弥呼，事鬼道，能惑衆，年已長大，無夫婿，有男弟佐治国。自为王以来，少有見者。……景初二年六月，……其年十二月，詔書報倭女王曰：「制詔親魏倭王卑弥呼。……」¹⁵⁾

그 나라 또한 본래 남자가 왕으로 삼았는데 7, 80년을 이어 오다 왜국에 난이 있어 여러 해에 걸쳐 서로 공격하고 싸웠다. 이에 한 여인을 왕으로 함께 세웠는데 이름은 히미코(卑弥呼)라 한다. 귀도(鬼道-기괴한 술법)를 행하고 능히 백성을 현혹시켰는데 나이가 먹도록 남편이 없었다. 남자 동생이 있어 치국(治国)을 보좌했다. 왕이 된 이래 (그녀를) 본 자가 적었다. …… 경초 2년(238년) 6월, ……그 해 12월, 조서를 내려 왜 여왕에게 말했다 「친위왜왕(親魏倭王) 히미코에게 제조(制詔-천자의 명령)한다.……」

이 기록에 의하면 왜국에는 히미코를 왕으로 내세우기 전에는 7- 80년 동안 남자가 왕이었다는 것이고, 히미코는 귀도로 백성을

14) 坂本太郎 他3人 校注(1982) 前掲書、pp.339-361 참조.

15) 陳寿撰(1999) 『三国志』鼎文書局, pp.856-857.

현혹시켰다는 것에서 길흉(吉凶)을 점치는 무녀(巫女)일 가능성이 높다. 나이는 이미 고령이고 남편은 없고 동생이 나라의 통치를 보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경초(景初) 2년(238년) 12월 히미코는 왜(魏)로부터 친위왜왕(親魏倭王)의 금인(金印)을 받았다는 기록으로 보면 히미코가 여왕이 된 시기는 238년 이전인 것 같다.

그 다음에 『後漢書』에 기록된 왜인전을 보면,

“桓靈間、倭国大乱、更相攻伐、曆年無主、有一女子名曰卑弥呼、年長不嫁、事鬼神道、能以妖惑衆、於是共立為王、……”¹⁶⁾

황제와 영제 사이(146-189년), 왜국은 대란이 일어나 서로 공격하고 싸웠다. 여러 해에 걸쳐 군주가 없었다. 이에 한 명의 여자가 있어 히미코라고 부른다. 미혼인 노처녀로 귀신도(神鬼道)를 부려 요술로써 백성을 현혹시켜 왕으로 추대되었다.

여기에서 환령간(桓¹⁷⁾靈¹⁸⁾間)은 서기 146년에서 189년 사이이다. 따라서 히미코는 189년 이전에 여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隋書』의 기록에 의하면

“桓靈之間，其国大乱，通相攻伐，曆年無主。有女子名卑弥呼，能以鬼道惑衆，於是国人共立為王。”¹⁹⁾

황제와 영제 사이 왜국에 대란이 있어 여러 해에 걸쳐 서로 공격하고 싸웠다. 해가 지나도록 주인이 없었다. 여자 이름이 히미코(卑弥呼)가 있었는데 능히 귀도(鬼道-기괴한 술법)로 백성을 현혹시켰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함께 왕으로 세웠다.

여기서 ‘환령지간(桓靈之間)’과 그 다음에 『北史』의 기록에서

“靈帝光和中，其国乱，通相攻伐，曆年無主。有女子名卑弥呼，

16) 吉川忠夫訓注者(2005) 『後漢書』 第十冊、岩波書店、pp.35-36.

17) 환제(桓帝, 재위 146년~167년)는 후한의 11대 황제.

18) 영제(靈帝, 재위 168년~189년)는 중국 후한의 제12대 황제.

19) 魏徵等奉敕撰(1956) 『隋書』 卷81, 二十五史編刊館, p.1825.

能以鬼道惑衆，国人共立為王。”²⁰⁾

영제 광화중 왜국에 대란이 있어 여러 해에 걸쳐 서로 공격하고 싸웠다. 해가 지나도록 주인이 없었다. 여자로 이름이 히미코(卑弥呼)가 있었는데 능히 귀도(기괴한 술법)로 백성을 현혹시켰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은 함께 왕으로 세웠다.

영제광화년간(靈帝光和年間)²¹⁾이라는 기록에서 『後漢書』와 마찬가지로 히미코가 여왕이 된 시기는 189년 이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상으로 중국 문헌에서 살펴본 기록에 의하면 히미코가 여왕이 된 시기를 간단히 종합해서 보면 대략 서기 200년 전에 히미코는 왜왕이 된 것 같다.

이제 살펴볼 책은 한국의 기록이다. 우선 『三國史記』 신라본기 卷第二 八, 阿達羅尼師今 20년(173)에서 보면

“二十年夏五月。倭女王卑弥呼遣使來聘。”²²⁾

20년(173) 5월에 왜국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보내어 수교하였다.

와 같은 기록에서 히미코는 서기 173년 이전에 여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히미코의 沒年을 보면

“正始元年……其八年……，倭女王 卑弥呼与狗奴国男王卑弥弓呼素不和……卑弥呼以死，大作冢，径百余步，殉葬者奴婢百余人。更立男王，国中不服，更相誅殺，當時殺千余人。復立卑弥呼宗女壹与，年十三為王，国中遂定。”²³⁾

정시 원년(240)……8년(247)에는……왜여왕 히미코와 구노국의 남왕 비미궁호는 평소 사이가 나빴다……히미코가 죽고 무

20) 李延壽撰(2007) 『北史』 卷94, 陝西人民, p.3135. .[

21) 178년부터 184년까지.

22) 金富軾著·金種權訳(1986) 앞의 책, p.37.

23) 陳壽撰(1999) 前掲書, pp.857-858.

덤을 크게 만들었는데 직경이 백여 보가 되었다. 순장자는 노비가 백여 명이다. 남자 왕을 내세웠으나 온 나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서로 죽였다. 당시 천여 명이 죽었다. 다시 히미코의 종녀(宗女)인 13세의 일여(壹与)를 내세워 왕으로 하자 온 나라가 드디어 안정되었다.

와 같이 『日本書紀』의 편저자는 히미코의 몰년(沒年)과 진구황후의 몰년과는 22년 차이를 두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구황후가 서기 247년에 죽었다고 보기 때문에(이유는 후술한 각주 32 참조) 같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진구황후와 히미코는 활동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인물로 볼 수가 있다.

이외에도 진구황후와 히미코와 캐릭터도 비슷하다. 『三国志』에 나오는 히미코의 인물의 특성을 보면,

乃共立一女子為王, 名曰卑弥呼, 事鬼道, 能惑衆, 年已長大, 無夫?, 有男弟佐治国.²⁴⁾

이에 한 여인을 왕으로 함께 세웠는데 이름은 히미코(卑弥呼)라 한다. 귀도(鬼道-기괴한 술법)를 행하고 능히 백성을 미혹시켰는데 나이가 먹도록 남편이 없었다. 남자 동생이 있어 치국(治国)을 보좌했다.

여기서 “귀도란 즉 신을 섬기는 길, 呪術的 종교로서 샤머니즘, 신들려 神意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사람들의 요구를 신에게 전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呪術에 속달한 것이다. 이것을 직능으로 하는 샤머니즘 즉 무당으로 신과 사람의 중간에 개재해서 양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다한다.”²⁵⁾ 간단히 말하면 무당이 가지고 있는 주술적인 능력이다. “3세기 전반의 귀도는 야요이(弥生)시대의 왜인(倭人)사회에는 없었던 教義·祭式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²⁶⁾는 것 같이 그 당시 일본에 없는 샤머니즘 俗信의 세계가 한

24) 陳寿撰(1999) 前掲書, pp.856-857.

25) 水野祐(1977) 「謎の女王卑弥呼10の知識」『歴史読本』8月号、新人物往来社、p.69.

26) 山尾幸久(2003) 『古代王権の原像-東アジア史上の古墳時代-』学生社、p.133.

반도로부터 도래된 것이다. 이와 같이 히미코에서 볼 수 있는 무녀적인 성격을 진구황후에게도 다음의 『日本書紀』에서 알 수가 있다.

三月壬申朔、皇后選吉日、入齋宮、親為神主。²⁷⁾

3월 壬申 朔에 황후는 길일(吉日)을 가려 제궁에 들어가 스스로 신주²⁸⁾가 되었다.

이상으로 진구황후는 한국과 중국측 사료에서는 보이지 않고 왜 여왕 히미코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진구황후를 히미코와 동일인물로 보지 않는 한 진구황후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일 수밖에 없다.

4. 세오녀(細烏女)

앞에서 본 히미코가 진구황후에 해당하고 이 히미코가 신라의 세오녀라고 생각한다. 중국 『三国志』의 위지왜인전에 나오는 왜 여왕 히미코(卑弥呼)를 그 당시의 정확한 발음은 알 수가 없지만 현대 일본어에서는 ‘히미코’로 발음하고 ‘日巫女’로 태양(太陽)을 섬기는 무녀라는 뜻, 또는 ‘日御子’로 태양신(太陽神)의 자식이라는 뜻으로 고대 太陽信仰과 관련된 이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인물을 한국의 자료에서는 『三国遺事』에서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무녀 세오녀(細烏女)를 찾아볼 수가 있다.

『三国遺事』 제1권 紀異 第一 延烏郎 細烏女에 대한 기록에서 보면,

“第八阿達羅王即位四年丁酉。東海浜有延烏郎細烏女。夫婦而居。一日延烏婦海採藻。忽有一巖(一云一魚)負婦日本。国人見之曰。此非常人也。乃立為王。……其国人驚訝。奏獻於王。夫婦相会。立為貴妃。……祭天所。名迎日梟。又郁祈野。

27) 坂本太郎 他3人 校注(1982) 前掲書、p.331.

28) 神社의 神官(인간과 신 사이에서 신의 뜻을 살피거나 중재의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

제8대 아달라왕(阿達羅王)이 즉위한 4년 정유(丁酉; 157)에 동해(東海) 바닷가에는 연오랑(延烏郎)과 세오녀(細烏女)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날 연오랑이 바다에 나가 해조(海藻)를 따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 하나(물고기 한 마리라고도 한다)가 나타나더니 연오랑을 등에 업고 일본(日本)으로 가 버렸다. 이것을 본 그 나라 사람들은, “이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하고 세워 왕을 삼았다.……그 나라 사람들은 놀라고 이상히 여겨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었다. 이리하여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어 그녀로 귀비(貴妃)를 삼았다.…… 또 하늘에 제사 지낸 곳을 영일현(迎日縣) 또는 옥기야(郁祈野)라 한다.”²⁹⁾

157년(아달라 4) 동해안에 살던 연오랑은 바닷가에서 해조를 따다가 갑자기 바위가 움직이는 바람에 일본에 건너갔다. 이를 본 왜인들은 연오랑을 비상한 사람으로 여겨 왕으로 삼았다. 세오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세오녀도 일본에 가게 되었다. 이에 부부는 다시 만나고 세오녀는 귀비(貴妃)가 되었다. 이 설화는 그 내용을 비롯하여 주인공의 이름과 지명 등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태양신화라 할 수 있다. 그 흔적은 지금도 영일만, 즉 ‘해맞이’라는 뜻의 지명 속에 남아 있다.

세오녀는 히미코와 마찬가지로 무녀인데 서기 148년 영일(迎日)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 신라는 정치적 혼란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세오녀는 19세(166년) 때 흑세무민한 신라를 벗어나 왜국으로 망명할 때, 지금의 영일에서 신라군사에 쫓기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일식(日食)이 일어났다. 그때 놀란 신라인들은 해(日)를 맞이하는(迎) 대제(大祭)를 지냈고 이로 인해 이곳을 영일이라 불렀던 것이다. 세오녀는 왜국에 도착해서 규슈(九州) 남방 계모계사회(母系社會)에서 주술(呪術)로써 통치자가 되자 24세(172년)때 주아이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되었다고 추론한다.

세오녀가 32세(179년) 때 백제계 주아이를 살해하고 自爲王(스스로 왕이 되다)이 되어 세력이 점점 커지자 백제는 세오녀를 정치·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비록 세오녀가 신라인이지만 백

29) 一然著·李民樹訳(1991)『三国遺事』乙酉文化史, pp.75-76.

제 왕세계(王世系)에 귀화시켜 왜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230년³⁰⁾ 83세 때 백제로부터 칠지도를 받았고 247년³¹⁾ 4월 17일 100세로 파란만장의 생을 마감한다. 세오녀는 신라인이었기 때문에 사후에 왕대(王代)도 받지 못했고 천황이 아닌 진구황후로 기록 되는 비련의 여왕이 되었다고 추론한다.

그녀의 사후 재차 분쟁이 일어나 일여(壹与)라는 여왕을 내세워 평화를 찾았지만 결국 269년 자멸하고倭는 무정부상태가 빠져韓·中 史書에 倭에 관한 기록이 공백기가 생긴다. 이 공백기간에 야마토(大和)정권이 탄생한다. 그래서 『日本書紀』 편저자들은 만세 일계(일본 황실의 혈통이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유지하기 위해 역사를 2주갑(120년) 인상하여 이 공백을 메운다. 이로 인해 『日本書紀』의 기록이 史學이 아닌 詐學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史書에는 빠짐없이 있는 서문이나 발문(跋文)도 없다. 따라서 편수 책임자도 모르고 志·列·伝도 없다. 이것은 후대 엉터리 기록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일 것이라고 본다.

5. 칠지도(七支刀)

칠지도란 『日本書紀』의 진구황후 52년(252년³²⁾)에 의하면 백제로

-
- 30) 『日本書紀』에서는 진구황후 52년(252년)에 칠지도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왜곡된 기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31) 『日本書紀』에서는 진구황후 69년(269년)에 진구황후가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히미코를 진구황후라고 가정한다면 중국 측 사료(三國志)에서는 히미코가 세상을 떠난 해를 서기 247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구황후는 269년에 죽은 것이 아니고 서기 247년에 죽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247년 죽었다고 하면 진구황후의 아들 오진천황이 서기 270년에 즉위하는데 그 사이에는 22년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 공백 기간 22년간은 앞에서 본 중국의 『三國志』에 의하면 히미코의 死後(247년) 재차 분쟁이 일어나 일여(壹与)라는 여왕을 내세워 평화를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22년 공백 기간은 히미코의 후계자인 일여의 재위기간을 다룬 기록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日本書紀』의 편저자는 일여의 기록을 진구황후의 기록에 흡수해 버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진구66년(266년)에 진의 무제 태초 2년에 왜의 여왕이 와서 공헌하였다고 하는 기록에서 보면 일여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음이 확실하다.
- 32) 『日本書紀』 기록에서는 2주갑(120년) 인상하여 기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기

부터 받은 칼이다.

“五十二年秋九月丁卯朔丙子、久氏等從千熊長彥詣之。則獻七枝刀一口・七子鏡一面、及種々重宝。”³³⁾

52년 秋九月의 丁卯 朔 丙子(10일)에 구테이(久氏) 등은 지쿠마나가히코(千熊長彦)를 따라왔다. 그때 칠지도(七枝刀) 한 자루와 칠자경(七子鏡) 한 개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보물을 바쳤다.

“위의 칠지도가 일본 나라켄(奈良県) 덴리시(天理市) 이소노카미(石上)神宮에 소장하고 있는 칠지도에 해당한다³⁴⁾”고 한다. 이 칼은 단창로 만든 길이 75cm의 양날 칼로 좌우로 가지와 같은 칼이 각각 3개씩 나와 있어 모두 7개의 칼날로 이루어져 있다. 칼몸의 앞과 뒤에는 61자의 예서체(隸書體) 명문이 새겨진 金象嵌(금으로 장식)으로 그 가장자리도 상감된 가는 선으로 둘러 있다. 한국에는 이에 관한 문헌이나 실물이 없다. 이 칼이 오랫동안 비장되어오다가 최초로 공개된 것은 1874년 이소노카미神宮의 대궁사(大宮司) 간마사토모(菅政友)가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 칼은 약 1800여 년 전에 만들어져 부식이 심했으나 金으로 상감했기 때문에 현재는 초접사촬영(超接写撮影)에 의해서 대부분 판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유리한 해석을 위해서 해석에 중요한 몇 자 즉 和, 出, 復, 濟, 子, 後 등이 많이 손상돼 고의적인 훼손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것은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복제품만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칠지도의 원본에 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 칼의 명문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異見)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칠지도의 앞면에서는 연호와 뒷면에서는 해석을 중심으로 고

372년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칠지도를 받은 해는 230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서 후술한다.

33) 坂本太郎 他3人 校注(1982) 前掲書、pp.359.

34) 井口喜晴(2004) 『<展示品の見どころ>七支刀 国宝 古墳時代』『奈良国立博物館だより』48号、奈良国立博物館、p.8.

잘하고자 한다.

①1951년

“(表)泰初四年六月十一日丙午正陽造百練□七支刀生辟百兵□
□供□□□□

(裏)□□□□□有此刀百□□也□□生聖□故為□□王□旨造□
不□□也”³⁵⁾

②1981년

“(表)泰和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陽造百練鍊七支刀生辟百兵宜
備供侯王□□□□作

(裏)先世以來未有此刀百滋□世□奇生聖音故為倭王旨造伝不□
□世”³⁶⁾

③1999년

“(表)泰和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陽造百練□七支刀世辟百兵宜
供供侯王□□□□□作

(裏)先世以來未有此刀百濟王世子奇生聖音故為倭王旨造伝示后世”³⁷⁾

④2004년

“(表)泰□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陽造百練鋼七支刀□辟百兵宜
供供侯王□□□□□作

(裏)先世以來未有此刀百濟王世□奇生聖□故為倭王旨造伝□□世”³⁸⁾

위 네 가지 명문판독을 자세히 보면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이 조금씩은 다르다. 위에서 초기 ①1951년에는 판독이 잘 되지 않아 무슨 뜻인지 짐작을 할 수가 없다.” 다카하시(高橋) 박사는 앞면의 연호를 六月十一日丙午가 되는 때는 서진(西秦)의 泰始四年 268이기 때문에 泰始로 판독했다.”³⁹⁾ 그러나 아무래도 판독에 계집녀 변의 한자 始로 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초기 일본학계는 始와 같은

35) 福山敏男(1951) 「石上神宮の七支刀」『美術研究』158号、国立文化財機構東京文化財研究所、p.117.

36) 竹内理三編(1981) 『寧楽遺文下』東京堂出版、p.991.

37) 西山要一(1999) 「東アジアの古代象嵌銘文大刀」『文化財學報』17集、奈良大学文学部文化財學科、p.44.

38) 井口喜晴(2004) 前掲書、p.8.

39) 福山敏男(1951) 前掲論文、p.114.

뜻의 한자 初로 보았다. 일본학계에서 ‘泰始四年’으로 본 이유는 ‘泰始四年’이라면 서진의 ‘泰始四年’ 즉, 268년이 될 것이고 『日本書紀』의 기록에서 진구황후 섭정52年(252년)에 칠지도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칠지도를 만들기도 전에 그것도 16년이나 전에 현상되었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논리에 전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일본학계는 칠지도의 앞면의 연호를 위에서 ②1981년과 ③1999년과 같이 ‘泰和四年’으로 판독했다. ‘泰和四年’은 중국 동진(東晉)의 연호로서 서력으로 따지면 369년이다. 『日本書紀』에서 진구황후 섭정 49년(249년)⁴⁰⁾의 기록을 보면

“擊新羅而破之。因以、平定…加羅七国。…屠南蛮忱弥多礼、
以賜百濟。於是、其王肖古⁴¹⁾及王子貴須、亦領軍來會。”⁴²⁾

신라를 격파하였다. 그리하여 …가라의 7국을 평정하였다.
…남만(백제의 남해에 있는 야만국)의 침미다례(탐라)를 도륙하여 백제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초고왕과 왕자 귀수는 군을 이끌고 와서 만났다.

진구황후 49년(249년)에 신라정벌을 하고 백제를 복속시키고 그 보답으로 백제왕(근초고왕)이 왜왕을 위해서 칠지도를 만들어서, 진구황후 52년(252년)⁴³⁾에 칠지도를 현상했다고 주장하면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렇게 하면 『日本書紀』의 신빙성, 임나일본부의 실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학계에서는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동진의 연호 太和와 음이 공통하는 것에서 泰和로 보고 서기 369년 해당한다는 설이 유력하다.”⁴⁴⁾ 그리고 한국에서도 許興植(1984)이 편찬한 『韓國金石全文』에서 보면 칼 뒷면의 “연호를 泰和四年, 연대를 백

40) 249년에 120년을 더하면 369년.

41) 백제 근초고왕을 초고왕으로 기록하고 있다.

42) 坂本太郎 他3人 校注(1982) 前掲書、p.357.

43) 252년에 120년을 더하면 372년.

44) 井口喜晴(2004) 前掲書、p.8.

제 근초고왕4년(서기 369년)⁴⁵⁾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처럼 “근초고왕 때인 369년에 칠지도가 만들어져 372년에 왜왕에게 하사되었다”⁴⁶⁾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日本書紀』의 기록에서 칠지도를 받은 해를 2주갑(120년)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보았을 때 진구황후 재위시기에 ‘泰和四年’으로 볼 수 있는 연대는 삼국시대의 위(魏)의 ‘太和四年(A.D 230년)’ 뿐이다. 따라서 칠지도를 왜는 백제로부터 ‘太和四年(A.D 230년)’에 받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것을 인정하면 『日本書紀』에서 기록한 진구황후의 신라정벌 및 백제 근초고왕(375년 死)과 귀수왕(384년 死)과도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 모조리 들통이 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제에 빠지자 일본인들은 칠지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특정할 수 없도록 위에서 ④2004년을 보면 칠지도가 만들어진 연호를 ‘泰□四年’과 같이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

그러면 칠지도의 뒷면의 해석은 지금까지 학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데 일본학계는 거의가 다음과 같이 해독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칼은 없었는데,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이 왜왕을 위해 만든 취지를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⁴⁷⁾

그리고 한국에서 이병도 박사의 해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선세 이래로 아직 이 칼이 없었던 바 백제왕세□(子) 기생성음이 짐짓(故=일부러) 왜왕 지를 위하여 만들었으니, 후세에 (길이) 전하여 보일지이다.”⁴⁸⁾

45) 許興植編(1984) 『韓國金石全文』 亜細亜文化社, p.3.

46) 임병주(1998) 『한권으로 읽는 삼국왕조실록』 도서출판 들녘, p.256.

47) “先世以来いまだこの刀有らず、百濟王の子奇生聖音が倭王の為に造った旨を後世に伝え示す。”

西山要一(1999) 前掲論文、p.44.

48) 송협섭(1988) 『일본 속의 백제문화』 한겨레비평총서29, 도서출판 한겨레, p.192.

여기서 필자는 선학들이 해독한 것과 달리 하고 싶은 곳은 다음과 같다.

‘王世□’에서 “지금까지 학자들은 王世子로 해석하였다. 이 해석에 따르면 칠지도는 백제의 왕세자가 왜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된다. 이에 대해서 이도학 교수는 “여러 문헌에서 ‘백제세자’는 많이 보이지만 ‘백제왕세자’라고 쓴 기록은 한 군데도 없다.”⁴⁹⁾고 지적하듯이 필자는 모든 역사적인 정황을 볼 때 ‘王世系’로 보아야 순리대로 해석이 된다고 본다.

‘奇生聖音’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부 왕세자 이름으로 보고 있지만 ‘奇生’은 사람이름이 아니다. ‘奇生’과 혼동하기 쉬운 ‘남에게 의지하여 산다’는 일종의 共生의 뜻을 나타내는 ‘寄生’은 한·중·일 똑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하지만 ‘奇生’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문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사용하고 있다.

時衆人等見此希奇生未曾有 『大正新脩大藏經』⁵⁰⁾

아직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未曾有) 이 희귀(希)하고 기이한(奇) 것이 나있는 것을 그때 사람들은 보았다.

惟鐘籠之奇生兮, 于終南之陰崖 《馬融·長笛賦》⁵¹⁾

종롱 대나무가 기이하게 종남산의 어둑한 벼랑에 나있네

위의 예문에서 해석한 바와 같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뜻글자인 한문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면 된다. ‘奇’는 ‘기이하다, 드물다’의 뜻이고 ‘生’은 ‘태어나다’의 뜻이다. 따라서 ‘奇生’은 ‘드물게 나다. 드물게 태어나다’의 뜻이다. 다시 말해서 뜻을 조금 비약을 하면 그 당시 세오녀가 신라인으로서는 드물게(奇) 백제인이 되어 다시 태어났다(生)는 것이다. 따라서 요즘 뜻으로 해석하면 ‘귀화하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다. ‘성음(聖音)’은 ‘인도의 여러 종교에서 신성화된

49) 임병주(1998) 앞의 책, p.254.

50) 中央研究院 漢籍電子文獻資料庫 http://hanchi.ihp.sinica.edu.tw/ihpc/hanjiq_ury?@1^514044039^807^^^703120010024000500010005^11@@@2036655058 (검색일:2019.11.15)

51) 諸子百家 Chinese Text Project <https://ctext.org/dictionary.pl?if=en&char=%E5%A5%87%E7%94%9F> (검색일:2019.11.15)

주문(呪文)⁵²⁾이라는 뜻이다. 3세기 백제는 수십 개의 담로국을 보유한 채 동남아는 물론 저 멀리 인도까지 세력을 떨쳤는데 그때 사용한 말로 추측한다. ‘성음’은 “신성화된 주문(呪文)을 하는 자, 즉 세오녀를 말하는 것으로 추론한다.

‘故’는 위에서 이병도 박사가 해석한 ‘짐짓 또는 일부러’의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때문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為’는 한문체에서 전치사의 용법으로 ‘~때문에, ~위해서’로 사용하고, 동사로서는 ‘~라고 한다, ~라고 생각한다, ~가 되다, ~을(를)하다’로 사용하고, 단정조동사로서 ‘~이다’라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칠지도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이 전부 ‘~위해서’라고 전치사로 해독하고 있다. 필자는 앞에서 중국 『三国志』 위지왜인전에서 히미코를 묘사한 표현 ‘自為王’과 같이 동사용법으로 ‘~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旨’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취지’ 또는 ‘왜왕 이름⁵³⁾’으로 보는데 이것은 부사용법으로 ‘잘’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본다.

따라서 전체적인 해석은 ‘지금까지(先世以來) 이러한 칼은 없었는데, 백제(百濟) 왕세계(王世系)에 귀화(奇生)한 무녀(聖音)가 왜왕이 되었으니(為) 잘(旨) 만들어(造) 후세(後世)에 전하여(伝) 보이라(示)’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 서기 230년 비류백제가 왜국에서 쿠데타해서 스스로 왕이 된(自為王) 세오녀에게 비록 신라인으로 혈통이 다르지만 왜왕으로 인정하는 징표로 칠지도를 하사했던 것이다. 당시 비류백제는 자제종족(子弟宗族)을 후(侯)나 王으로 임명하는 담로제 통치였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칼의 모양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가 있다. 칼의 좌우로 각각 3개씩의 칼날이 가지 모양으로 뻗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백제가 일본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왜(倭)는 백제로부터 여러 문물을 배워가

52) 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フリー百科事典 [https://ja.wikipedia.org/wiki/%E3%82%AA%E3%83%BC%E3%83%A0_\(%E8%81%96%E9%9F%B3\)](https://ja.wikipedia.org/wiki/%E3%82%AA%E3%83%BC%E3%83%A0_(%E8%81%96%E9%9F%B3)) (검색일:2019.11.15)

53) 蘇鎮轍(2004) 『金石文으로 본 百濟 武寧王의 세상』 円光大学校出版部, pp.113-116.

는 입장이라서 굳이 따지자면 왜보다 백제가 더 우위에 있는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백제가 왜의 진구왕후에게 칠지도를 바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왜왕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비록 세오녀가 비록 신라인이지만 왜왕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칼이라고 생각한다.

6. 결론

韓·中·日 史書에서 거의 동시대에 등장하는 3명의 女人 즉 細烏女(『三国遺事』), 卑弥呼(『三国志』의 魏志倭人伝), 神功皇后(『日本書紀』)는 동일인물이라고 본다.

신라의 무녀(巫女)인 세오녀가 왜(倭)로 망명해서 여왕이 되었다. 이 세오녀가 중국에서는 히미코, 일본에서는 진구황후로 둔갑되어 묘사된 것으로 본다.

진구황후를 세오녀와 연결시키는 것은 진구황후가 된 시기와 세오녀가 왜로 망명해서 왜왕이 된 시기와 비슷하고, 또 진구황후는 신라의 계보를 잇고 있기 때문이다.

『日本書紀』 편저자는 세오녀가 신라인이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적인 인물 진구황후를 만들어, 세오녀(중국에서는 히미코)의 활동시기와 캐릭터는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3세기경에 있을 수 없는 신라정벌 등 엉터리 기록을 첨가해서 전설적인 영웅으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진구황후 52년(252년) 때 백제로부터 받은 칠지도는 백제가 비록 신라인이지만 왜왕이 되어 백제 왕세계(王世系)에 귀화한 세오녀(진구황후)에게 왜왕이 된 것을 인정하는 칼이다.

이상 진구황후의 정체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신라인 무녀 세오녀라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사료가 한국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参考文献

- 金富軾著·金種權訳(1986)『完訳原文三国史記』明文堂, p.37, pp.123-164.
- 魯成煥(1993)「神功皇后伝承과 新羅」『日本学』13집, 東国大学校 日本学研究所, p.244.
- 蘇鎮徹(2004)『金石文으로 본 百濟 武寧王의 세상』円光大学校出版, pp.113-116.
- 송협섭(1988)『일본 속의 백제문화』한겨레비평총서29, 도서출판 한겨레, p.192.
- 一然著·李民樹訳(1991)『三国遺事』乙酉文化史, pp.75-76.
- 임병주(1998)『한권으로 읽는 삼국왕조실록』도서출판 들녘, p.254, p.256.
- 許興植編(1984)『韓國金石全文』亜細亜文化社, p.3.
- 井口喜晴(2004)「<展示品の見どころ> 七支刀 国宝 古墳時代」『奈良国立博物館だより』48号、奈良国立博物館, p.8.
- 倉野憲司·武田祐吉 校注(1983)『古事記 祝詞』日本古典文学大系1、岩波書店, p.228.
- 坂本太郎 他3人 校注(1982)『日本書紀上』日本古典文学大系67、岩波書店, p.327, p.331, pp.339-361.
- _____ (1982)『日本書紀下』日本古典文学大系68、岩波書店, pp.410-494.
- 竹内理三編(1981)『寧楽遺文下』東京堂出版, p.991.
- 直木孝次郎(1988)『古代日本と朝鮮·中国』講談社学術文庫, p.89.
- 西山要一(1999)「東アジアの古代象嵌銘文大刀」『文化財学報』17集、奈良大学文学部文化財学科, p.44.
- 福山敏男(1951)「石上神宮の七支刀」『美術研究』158号、国立文化財機構東京文化財研究所, p.114, p.117.
- 水野祐(1977)「謎の女王卑弥呼10の知識」『歴史読本』8月号、新人物往来社, p.69.
- 山尾幸久(2003)『古代王権の原像-東アジア史上の古墳時代-』学生社, p.133.
- 吉川忠夫訓注者(2005)『後漢書』第十冊、岩波書店, pp.35-36.
- 魏徵等奉敕撰(1956)『隋書』卷81, 二十五史編刊館, p.1825.
- 李延寿撰(2007)『北史』卷94, 陝西人民, p.3135.
- 陳寿撰(1999)『三国志』鼎文書局, pp.856-858.
- 中央研究院 漢籍電子文獻資料庫 <http://hanchi.ihp.sinica.edu.tw/ihpc/hanjiquery?@1^514044039^807^^703120010024000500010005^11@@2036655058>(검색일: 2019.11.15)
- 諸子百家 Chinese Text Project <https://ctext.org/dictionary.pl?if=en&char=%E5%A5%87%E7%94%9F>(검색일:2019.11.15)
- 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フリー百科事典 [https://ja.wikipedia.org/wiki/%E3%82%AA%E3%83%BC%E3%83%A0_\(%E8%81%96%E9%9F%B3\)](https://ja.wikipedia.org/wiki/%E3%82%AA%E3%83%BC%E3%83%A0_(%E8%81%96%E9%9F%B3))(검색일:2019.11.15)

<Abstract>

The Identity of Empress Jingū

Kim, Sung-Bong

It is considered that the three women who appear in Korean 'Seohnyeo' from 『Samguksag』, Chinese 'Himiko' from 『Samgukji』's Wiji Japanese and Japanese 'Empress Jingū' from 『Nihonshoki』 around the same period are one and the same person.

Seohnyeo, a shaman from Silla, went to Japan as an exile and became a queen. She was described as Himiko in China and Empress Jingū in Japan.

The editor of 『Nihonshoki』 made up a fictitious character, Empress Jingū, because Seohnyeo(Himiko in China) was a Sillan. The character and the period of activity of Empress Jingū were similar to Seohnyeo, yet she was turned into a legendary heroine by adding fake records such as the conquest of Silla.

The reason why Empress Jingū was linked up with Seohnyeo is that the period of Empress Jingū became an empress is similar with the period when Seohnyeo became a queen of Japan. Furthermore, Empress Jingū continued the tradition of Silla.

Also, there is a Chiljido that acknowledged Seohnyeo, who naturalized as a Baekje Royal family from Silla, as the queen of Japan.

Key words : Seohnyeo, Himiko, Empress Jingū, Chiljido

투 고 일 : 2019년 9월 30일

심 사 일 : 2019년 10월 18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1월 9일